

장애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장애학생 부모의 가족기능과 가족역량,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 원 희*

공주대학교 BK21플러스사업팀 연구교수

권 혁 상**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곽 승 철***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장애학생 부모의 가족기능과 가족역량, 그리고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8명의 장애학생 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총 10회기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특수교육일반, 교육 및 생활 지도, 법적지위 및 직업·복지의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장애학생 프로그램은 심리재활, 미술활동, 놀이활동, 체육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었다. 연구결과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가족기능과 가족역량, 그리고 양육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기능에서는 하위요인 중 가족응집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가족적응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역량에서는 지식, 능력, 자기효능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체계옹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양육 효능감은 전반적인 양육요인을 비롯한 하위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해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가족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 부모, 가족기능, 가족역량, 양육효능감

* 제 1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sckwak@kongju.ac.kr)

1. 서론

장애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가족구성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수교육에서는 장애학생에게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가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모 교육을 비롯한 가족지원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 포함하고 있다. 가족지원은 장애학생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학생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지원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전문가들도 공감하지만, 실제 개별교육기관에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는 프로그램 구성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장애아 가족지원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원희와 곽승철(2015)이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된 질적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24.6%로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이외 가족의 삶에 대한 주제가 19.5%, 장애아 양육경험이 22.1%,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이 11.7%, 교사와 전문가와의 협력에 대한 주제가 6.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중에서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의 전환 및 진로에 대한 지원, 학교와 사회에 대한 지원, 심리적·경제적·관계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가족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가족지원 프로그램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결연 프로그램, 자녀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실시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실시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조윤경, 김경혜, 2005), 역량강화 프로그램(강혜원, 박지연, 2011; 이옥등, 박순희, 정해동, 2014; 이옥등, 박순희, 정해동, 2015), 전환교육 프로그램(정선진, 박승희, 2009; 정지희, 박지연, 2010),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프로그램(정서형, 박지연, 2016)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를 포함한 가족기능과 역량강화, 그리고 부모들의 자기효능감 및 양육효능감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외에도 전반적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성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실시방법에서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강연을 비롯한 강의식 교육이 82%로 대부분이었지만(전혜인, 이명희, 2014), 이외에도 감정코칭(최경화, 홍상옥, 2016), 집단상담(박태경, 박재연, 2017) 등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부모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액션러닝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었고(김은라 외, 2014; 김은라, 박재국, 정계숙, 2015), 부모 효율성 훈련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과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 훈련(STEP,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을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기도 하였다(유민주, 선우현, 2009).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었지만, 가족지원 프로그램 방법에 따른 효과크기를 조사해 본 결과 개별접근이나 강의와 토론을 혼합한 방법보다는 전체모임 형태와 강의식 방법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임희수, 허계형, 손병덕, 2018).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아 부모의 역량 및 가족기능, 그리고 양육효능감 부분에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능력, 부모의 상호작용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정필연, 임동선, 2011). 국내와 마찬가지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는 국외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아 부모의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Reich, Bickman, & Helflinger, 2004). 이외에도 장애아 부모의 우울 및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Brookman-Frazer, 2004),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에도 긍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Evans et al., 2003). 이와 달리 일부 연구에서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조윤경, 김경혜, 2005),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들의 양육효능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강혜원, 박지연, 2011). 그럼에도 이와 같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효과가 양적으로는 낮은 수치를 보이더라도, 질적으로는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아 부모의 가족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애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혜인, 이명희, 2014). 장애아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과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자녀에 대한 지도방법 등의 내용에서는 비교적 만족한 반면, 자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일 경우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장애아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부모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녀와 관련된 양육지원으로 구성될 경우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임희수, 허계형, 손병덕, 2018). 그러므로 장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구성은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보다 직접적으로 장애아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혜인과 이명희(2014)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아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부모가 약 21%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장

애아 자녀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모교육의 기회 또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및 내용, 그리고 실시방법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아 부모의 가족기능과 가족역량, 그리고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장애학생 부모의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장애학생 부모의 가족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장애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장애학생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A시와 B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참여의사를 밝힌 부모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하였다.

1) 연구 참여 학부모 현황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학생 부모들은 모두 21명이었으나, 10회기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모두 실시한 부모는 18명으로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 18명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이 연구에 참여한 장애학생 부모들의 성별은 어머니가 13명으로 72.2%에 해당되었으며, 연령은 주로 41-50세(44.4%)로 나타났다. 학력은 9명(50%)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8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 부모들 가운데 8명은 월평균 400만원 이상의 소득(44.4%)을 나타내었으며, 자녀를 위한 월 교육비는 10-5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8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 양육에 사용하는 시간은 1-5시간이 7명(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직업은 전문직

이 6명(33.3%), 주부 4명(22.2%), 자영업 3명(16.7)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13명(72.2%)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부모가 결혼유지 상태를 나타내었다. 참여자 중 세 가정은 부모가 모두 참여하였다.

<표 1> 연구 참여 학부모 현황 (N=18)

항목	구분	n(%)	항목	구분	n(%)
자녀와의 관계	부	5 (27.8)	교육과 치료비 (월)	10만원 이하	2 (11.1)
	모	13 (72.2)		10-50만원 미만	8 (44.4)
연령	30세 미만	3 (16.7)		50-100만원 미만	3 (16.7)
	30-40세	3 (16.7)		100만원 이상	2 (11.1)
	41-50세	8 (44.4)		무응답	3 (16.7)
	51-60세	4 (22.2)	자녀 양육시간	1-5시간 미만	7 (38.9)
부모의 학력	중졸	4 (22.2)		5-10시간 미만	6 (33.3)
	고졸	5 (27.8)		10시간 이상	5 (27.8)
	대졸	7 (38.9)	부모 직업	주부	4 (22.2)
대학원 이상	2 (11.1)	자영업		3 (16.7)	
부모의 종교	무교	8 (44.4)		시간제	1 (5.6)
	기독교	5 (27.8)		사무직	1 (5.6)
	불교	5 (27.8)	전문직	6 (33.3)	
부모의 월소득	100 - 200만원 미만	3 (16.7)	기타	3 (16.7)	
	200 - 300만원 미만	2 (11.1)	가족 구성형태	확대가족 (조부모, 친척과 함께)	5 (27.8)
	300 - 400만원 미만	5 (27.9)		핵가족 (부부와 자녀)	13 (72.2)
	400 - 500만원 미만	6 (33.3)	결혼상태	결혼유지	18 (100)
	500만원 이상	2 (11.1)			

2) 연구 참여 장애학생 현황

이 연구에 참여한 장애학생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 18명의 자녀로, 세 가정이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장애학생의 기본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 장애학생 현황 (N=15)

항목	구분	n(%)	항목	구분	n(%)
성별	남	10 (66.7)	형제자매 여부	있음	14 (93.3)
	여	5 (33.3)		없음	1 (6.6)
연령	12세 이하	6 (40.0)	최초장애 진단시기	4세 이하	8 (53.3)
	13-19세	4 (26.6)		5-10세	5 (33.3)
	20세 이상	5 (33.3)		11세 이상	2 (13.3)
장애유형	뇌병변장애	2 (13.3)	치료 시기	3년 이하	9 (60.0)
	지적장애	8 (53.3)		4-5년	3 (20.0)
	자폐성장애	5 (33.3)		6년 이상	3 (20.0)
장애정도	가벼운편	1 (6.7)	현재 학교배치	특수학교	9 (60)
	보통수준	6 (40.0)		특수학급(시간제)	3 (20.0)
	심한편	5 (33.3)		통합교육	3 (20.0)
	매우 심한편	3 (20.0)			

장애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10명(66.7%), 여학생이 5명(33.3%)이었으며, 연령은 12세 이하 6명(40.0%), 13-19세가 4명(26.6%), 20세 이상 5명(33.3%)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8명(53.3%), 자폐성장애 5명(33.3%), 뇌병변장애 2명(13.3%)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장애정도는 보통 수준이 6명(40.0%), 심한편이 5명(33.3%), 매우 심한편이 3명(20.0%), 가벼운 편이 1명(6.7%)으로 나타났으며, 한 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에서 형제·자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배치의 경우 특수학교가 9명(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학급(시간제) 3명(20.0%), 통합교육 3명(20.0%)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장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성 근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모 대상 가족지원 프로그램

부모 대상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권요한 외(1998)가 장애학생 부모교육의 내용을 특수교육일반, 교육 및 생활지도, 법적 지위 및 직업·복지로 구분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에 따른 교육주제 및 내용은 장애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실태 및 부모의 요구를 파악한 선행연구와 장애인 부모회

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고하였다. 이외에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학교 교원과 협의를 실시하였고, 연구자가 그동안 실시해 온 장애아 부모교육 및 상담의 강의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은 부모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강의와 실습을 적절히 분배하였다. 교육 주제 별 세부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부모 대상 가족지원 프로그램 내용

영역	교육 주제	세부 교육내용	강사	교육방법
특수교육 일반	그림으로 만나는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 그림 검사의 이해 및 실시 길 그림 발표 및 나누기 	미술치료 전문가	강의1시간 실습2시간
	장애아 가족의 불안과 분노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전념치료 관점에서 본 불안과 분노 관리 Beck의 불안심리 검사 불안 및 분노 상태에 따른 행동 적용 	상담부문 교수	강의1시간 실습2시간
	장애아동을 위한 식생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및 청소년기 영양의 특성 및 성장발달 장애아동 비만과 예방 	식품과학 교수	강의3시간
교육 및 생활 지도	가정에서의 장애자녀를 위한 음악놀이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치료의 원리 및 정의 장애와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음악놀이 활동 실습 	음악치료 전문가	강의1시간 실습2시간
	긍정적 행동지원1: 가정에서의 문제행동 지원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아의 문제행동 원인 및 교육방법 사례별 중재방안 실습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등 	행동분석 전문가	강의1시간 실습2시간
	긍정적 행동지원2: 대안행동 가르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행동 대응전략 및 한계 선행사건 및 후속결과 중재 	행동분석 전문가	강의1시간 실습2시간
	장애아동의 심리적 재활을 위한 동작법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작법 유래 및 내용 사례별 동작법 실시(자세 만들기, 모양 만들기, 등) 장애유형별 동작법 적용 	특수교육 교수 및 전문가	실습3시간
법적 지위 및 직업·목지	장애학생 인권 관련 법률 및 장애인 복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인권관련 법률 소개 인권침해 사례별 대응 전략 	법률관련 교수	강의3시간
	장애자녀의 성인기 준비(진로, 직업, 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 및 자립체험활동 사례 자폐사랑협회 주요활동 및 자립관련 프로그램 소개 	장애아 부모	강의3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도예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장애 형제자매, 가족과 함께 도예 작품 만들기 	도예 전문가	실습4시간
계	강의 14시간, 실습 17시간, 총 31시간			

<표 3>에서 제시한 교육 주제 및 세부 내용들은 가족지원을 전공하는 특수교육과 교수 2명, 상담 분야 교수 1명, 미술치료 전문가 1명, 놀이치료 전문가 1명, 그 외 학교에서 가족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현직 특수교사 4명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완성하였다.

2) 장애학생 대상 가족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구성은 연구 참여 부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부모들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을 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선호도를 함께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체육활동, 미술활동, 놀이 활동, 심리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각 영역 별 주제에 따른 교육 주제 및 세부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장애학생 대상 가족지원 프로그램 내용

영역	교육 주제	세부 교육내용	강사	교육시간	
심리 재활	인테이크 및 이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자 피훈련자 간 라포 형성 • 과제설정 • 상/하체 이완훈련 	심리 재활 전문가	1.5시간	
	이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체 이완훈련 • 동작별 단위동작 		1.5시간	
	단위동작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별 단위동작 • 단위동작을 통한 적정 긴장 넣기 		1.5시간	
	수직계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앉기 자세, 무릎서기 자세, 서기 자세 	심리 재활 전문가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자세별 모양 만들기 • 각 자세별 중심이동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긴장 제거 및 적정긴장 넣기 • 보행훈련 		1.5시간
미술 활동	형태그리기 습식수채화 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 주머니 던지고 받기 • 다양한 형태그리기(직선과 곡선) • 찰흙 반죽하기 	특수 교사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감을 활용하여 나무 그리기 • 찰흙 밀기, 누리기, 떼기 • 찰흙으로 구 만들기, 두꺼비집 만들기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와 달 그리기 • 물감을 활용하여 과일 그리기 • 찰흙으로 나무 만들기 		1.5시간	

<표 4> 장애학생 대상 가족지원 프로그램 내용 (계속)

영역	교육 주제	세부 교육내용	강사	교육시간
미술 활동	형태그리기 습식수채화 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지개 색깔 만들기 • 물감을 활용하여 동물 그리기 • 찰흙으로 동물 만들기 	특수 교사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출과 일몰 그리기 • 찰흙으로 가족 얼굴 만들기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을 풍경 그리기 • 찰흙으로 좋아하는 음식 만들기 		1.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으로 찢고 붙여 가을풍경 만들기 • 자신의 작품으로 액자 만들기 		1.5시간
놀이 활동	신문지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를 찢어 성 만들기 • 신문지를 구겨 눈 만들기 • 신문지를 던져 눈싸움하기 	특수 교사	1.5시간
	종이블록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 블록 탑 쌓기, 종이 블록 도미노 • 종이 블록 볼링 게임 • 파라슈트 그네타기 		1.5시간
	공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솜털공 튀기기, 티볼 게임 • 고무공 바구니에 던져 넣기 • 짐볼 발로 주고받기 		1.5시간
체육 활동	건강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컵스택 활용 놀이 및 경기 • 플로어 컬링(실내 컬링) 체험 및 경기 	특수 교사	1.5시간
	도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반 던지기 놀이 및 경기 • 박민턴 체험 및 경기 		1.5시간
계	심리재활 9시간, 미술활동 10.5시간, 놀이활동 4.5시간 체육활동 3시간, 총 27시간			

<표 4>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영역 및 세부 내용은 특수교육과 교수 2명, 심리재활 전문가 3명, 미술치료 전문가 1명, 특수교사 2명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완성하였다.

3) 종속변인 측정 도구

(1) 가족기능 검사

장애학생 부모의 가족기능은 FACES 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를 변안한 가족기능 척도(민혜영, 1990)를 김윤경(2015)이 장애아 학부모에 맞게 수정·보완한 가족기능 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기능 검사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등 2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도구의 구성과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표 5〉 가족기능 검사 구성 및 신뢰도 결과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가족응집성	1,3,5,7,9,11,13,15,17,19	10	.747
가족적응성	2,4,6,8,10,12,14,16,18,20	10	.767
전체		20	.862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기능 검사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62로 나타났으며, 2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747 - .767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기능 검사 척도의 신뢰도는 노경섭(2016)이 제시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역량 강화

가족역량 강화 척도는 Koren과 Dechillo, Freesen(1992)이 개발하고, 이를 수정한 가족역량 강화 척도(FES: Family Empowerment Scale)를 사용하였다(송경선, 2000). 가족역량 강화 척도는 체계용호, 지식, 능력, 자기효능감 등 4요인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도구의 구성과 신뢰도는 〈표 6〉과 같다.

〈표 6〉 가족역량 강화 척도 구성 및 신뢰도 결과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체계용호	1,2,3,4,5,6,7,8,9	9	.852
지식	10,11,12,13,14,15,16,17,18,19,20	11	.909
능력	21,22,23,24,25,26,27,28	8	.896
자기효능감	29,30,31,32	4	.776
전체		28	.965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역량 강화 척도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65로 나타났으며, 4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776 - .909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출된 신뢰도는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양육효능감

이 연구에서는 장애학생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형성(2002)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를 이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양육효능감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 5요인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도구의 구성과 신뢰도 산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양육효능감 척도 구성 및 신뢰도 결과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전반적인 양육능력	1,4,5,9,10,14,19,24,32,34	9	.929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2,6,11,15,20,25	6	.942
의사소통능력	3,7,12,16,21,23,26,29	8	.952
학습지도능력	8,17,22,27,30,33	6	.911
훈육능력	13,18,28,31	4	.713
전체		29	.982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 척도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82로 나타났으며, 5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713 - .952 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실시 절차

1) 연구 설계

이 연구에서는 장애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부모의 가족기능 및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학생 부모 18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사전-사후 설계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독립변인으로 부모의 가족기능 및 가족역량, 양육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설계하였다. 실험집단은 모두 장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며, 장애학생은 모두 충남지역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실험기간 중 타 기관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2) 연구 절차

이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실시, 프로그램 평가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가족지원 프로그램 내용 및 실시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연구진과 A시의 특수학교 교사 간 두 차례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영역별 세부 주제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은 2018년 4월 충남지역 A시 및 B시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청 및 특수학교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안내하였다. 총 21명의 부모님 중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에 모두 참여한 사람은 18명으로 이를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 부모님의 안정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의 교육수준, 선호 활동, 문제행동 여부 등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장애학생 프로그램 역시 연구진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가들과 세 차례 협의의를 진행하여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시 이전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가들과 특수교육과 학부모 22명을 대상으로 참여 학생에 대한 이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두 차례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모들을 통해 사전에 파악한 장애학생의 현재 교육수준 및 행동특성, 건강상태, 생활습관, 약물복용 여부 등을 설명하였고, 특별히 행동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교육방법을 전달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총 10회기로 운영되었다. 장애학생 프로그램은 연령을 고려하여 두 반으로 편성한 후 각 프로그램별 1시간 30분씩 번갈아 운영하였다. 두 반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연령 및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여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별 구체적인 실시절차는 <표 8>과 같다.

<표 8> 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시절차

일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장애학생 프로그램	비고
1회(토) (6/9)	그림으로 만나는 나	심리재활, 체육활동	개회식 사전검사
2회(토) (6/23)	장애아동을 위한 식생활관리	심리재활, 미술활동	
3회(토) (7/7)	장애 가족의 불안과 분노 치료	놀이활동, 미술활동	
4회(토) (7/21)	가정에서의 장애자녀를 위한 음악놀이 지도	놀이활동, 체육활동	
5회(토) (8/4)	긍정적 행동지원1: 가정에서의 문제행동 지원 사례	놀이활동, 미술활동	
6회(토) (8/18)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도예 프로그램		가족참여
7회(토) (9/1)	긍정적 행동지원2: 대안행동 가르치기	심리재활, 미술활동	
8회(토) (9/15)	장애자녀의 성인기 준비	심리재활, 미술활동	
9회(토) (9/29)	장애학생 인권 관련 법률 및 장애인 복지정책	심리재활, 미술활동	
10회(토) (10/13)	장애아동의 심리적 재활을 위한 동작법 소개	심리재활, 미술활동	사후검사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주관하여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장애학생 프로그램은 각 영역별 전문가와 매 회기 연구자가 소속된 특수교육과 학생 22여명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었다. 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장애학생과 특수교육과 학생의 비율이 1:1 또는 1:2로 실시되었고, 미술활동을 포함한 그 이외 프로그램은 1:1 또는 2:1의 비율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이전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당일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 중 한 부모는 경미한 지적장애로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구자의 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 처리

자료 처리는 SPSS(ver 25.0)를 사용하여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경우 표본수가 적고,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정결과 가족역량과 양육효능감 부분에서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모수 통계를 활용하여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대신한 비모수 통계 방법인 윌콕슨의 부호순위검정(Wilcoxon's sign ranked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장애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장애학생 부모의 가족기능과 가족역량 강화, 그리고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학생 부모 1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시 전후 가족기능 척도, 가족역량 강화 척도, 양육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여 두 차례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장애학생 부모의 가족기능에 대한 전체 및 하위 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가족기능 검사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구분 (하위요인)	사전 M(SD)	사후 M(SD)	사후(M) - 사전(M)
가족기능	3.60 (.520)	3.72 (.434)	0.12
(가족응집성)	3.69 (.513)	3.88 (.561)	0.19
(가족적응성)	3.51 (.767)	3.55 (.364)	0.04

<표 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가족기능 전체 및 모든 하위 요인에서 장애학생 부모의 사후 검사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학생 부모의 가족기능 검사 사전 점수 대비 사후 점수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윌콕슨의 부호 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가족기능 검사의 윌콕슨 부호 순위검정 결과

하위요인	시기	표본 수	평균 순위	순위 합	Z	p
가족응집성	음의 순위	18	8.33	25.00	-1.993*	.046
	양의 순위	18	7.92	95.00		
가족적응성	음의 순위	18	9.40	47.00	-1.401	.161
	양의 순위	18	8.83	106.00		
전체	음의 순위	18	9.50	38.00	-2.074*	.038
	양의 순위	18	9.50	133.00		

* $p < .05$

윌콕슨의 부호 순위검정 결과, 장애학생 부모의 가족기능 검사 사전점수와 사후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 = -2.074, p < .038$). 구체적으로 음의 순위(Sum rank=38.00)보다 양의 순위(Sum rank=133.00)가 더 높게 나타나, 사전 대비 사후 가족기능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위요인별 검정결과 가족응집성의 경우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Z = -1.993, p < .046$), 가족적응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Z = -1.401, p < .161$)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장애학생 부모의 가족기능 가운데 가족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가족역량에 미치는 영향

장애학생 부모의 가족역량 검사 척도에 대한 전체 및 하위 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가족역량 강화 척도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구분 (하위요인)	사전 M(SD)	사후 M(SD)	사후(M) - 사전(M)
가족역량강화	3.53 (.535)	3.82 (.462)	0.29
(체계옹호)	3.59 (.549)	3.78 (.490)	0.19
(지식)	3.53 (.555)	3.85 (.517)	0.32
(능력)	3.51 (.598)	3.81 (.534)	0.30
(자기효능감)	3.50 (.555)	3.83 (.469)	0.33

가족역량 강화 척도의 전체 및 모든 하위 요인에서 장애학생 부모의 사후검사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전 대비 사후검사 결과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한 윌콕슨의 부호 순위검정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가족역량 강화 척도의 윌콕슨 부호 순위검정 결과

하위요인	시기	표본 수	평균 순위	순위 합	Z	p
체계옹호	음의 순위	18	6.00	30.00	-1.710	.087
	양의 순위	18	9.00	90.00		
지식	음의 순위	18	5.33	16.00	-2.871**	.004
	양의 순위	18	9.79	137.00		
능력	음의 순위	18	4.50	13.50	-2.997**	.003
	양의 순위	18	9.96	139.50		
자기효능감	음의 순위	18	.00	.00	-3.097**	.002
	양의 순위	18	6.50	78.00		
전체	음의 순위	18	4.00	16.00	-3.027**	.002
	양의 순위	18	11.07	155.00		

** $p < .01$

윌콕슨의 부호 순위검정 결과, 장애학생 부모의 가족역량 강화 척도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 = -3.027$, $p < .002$). 구체적으로 음의 순위(Sum rank=16.00)보다 양의 순위(Sum rank=155.00)가 더 높게 나타나, 사전 대비 사후 가족역량 강화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하위요인별 검정결과 지식과 능력,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경우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체계옹호의 경우에는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Z = -1.710$, $p < .087$)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장애학생 부모의 가족역량 가운데 지식, 능력,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장애학생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전체 및 하위 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양육효능감 척도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구분 (하위요인)	사전 M(SD)	사후 M(SD)	사후(M) - 사전(M)
양육효능감	3.45 (.580)	3.78 (.480)	0.33
(전반적인 양육능력)	3.41 (.559)	3.72 (.488)	0.31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3.50 (.659)	3.76 (.572)	0.26
(의사소통능력)	3.49 (.675)	3.82 (.540)	0.33
(학습지도능력)	3.52 (.629)	3.84 (.506)	0.32
(훈육능력)	3.34 (.529)	3.76 (.510)	0.42

양육 효능감 척도 전체 및 모든 하위 요인에서 장애학생 부모의 사후검사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윌콕슨의 부호 순위검정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양육효능감 척도의 윌콕슨 부호 순위검정 결과

하위요인	시기	표본 수	평균 순위	순위 합	Z	p
전반적인 양육능력	음의 순위	18	2.50	5.00	-3.132**	.002
	양의 순위	18	8.85	115.00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음의 순위	18	7.50	15.00	-2.572**	.010
	양의 순위	18	8.08	105.00		
의사소통능력	음의 순위	18	2.50	5.00	-3.135**	.002
	양의 순위	18	8.85	115.00		
학습지도능력	음의 순위	18	4.75	9.50	-2.527*	.011
	양의 순위	18	7.41	81.50		
훈육능력	음의 순위	18	9.50	9.50	-2.920**	.004
	양의 순위	18	7.89	110.50		
전체	음의 순위	18	4.50	9.00	-3.196**	.001
	양의 순위	18	9.60	144.00		

* $p < .05$, ** $p < .01$

윌콕슨의 부호 순위검정 결과, 장애학생 부모의 양육효능감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3.196, p <.001$). 구체적으로 음의 순위(Sum rank=9.00)보다 양의 순위(Sum rank=144.00)가 더 높게 나타나, 사전 대비 사후 양육효능감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위요인별 검정결과 5개 하위요인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장애학생 부모의 양육효능감 가운데,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I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장애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장애학생 부모의 가족기능과 가족역량, 그리고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일반, 교육 및 생활지도, 법적지위 및 직업·복지의 내용으로 장애학생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장애학생을 위해 심리재활, 미술활동, 놀이활동,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총 10회기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 적용한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장애학생 부모의 가족기능과 가족역량, 그리고 양육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가족기능 하위요인 중 가족적응성, 가족역량 하위요인 중 체계옹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프로그램 내용과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능은 가족특성과 생애주기, 그리고 가족의 상호작용과 연관된다(Turnbull et al., 2013). 그러므로 단기간의 가족지원프로그램 실시로 가족기능에 변화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조윤경과 김경혜(2005)의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산출하지는 못했지만 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가족기능 중 가족응집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적응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응성과 관련된 문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 내 문제해결 방법, 의사결정 방식, 가족 규칙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사실 이와 같은 가족기능은 단기간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실시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기능 강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역량은 프로그램 실시 이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

으로 가족역량 하위요인 중 지식, 능력,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항목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계옹호 부분은 다소 낮은 향상을 보였다. 체계옹호와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면, 자녀와 관련된 서비스 체계에 대한 지식이나 자녀와 관련된 문제해결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장애학생 인권 관련 법률 및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법적 지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다른 회기에 비해 이 회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만족도 조사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내용이 아닌 현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체계옹호 부분에서 낮은 향상을 보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향후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이론에 능통한 전문가보다는 가능한 장애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져 있고 장애아 부모와 공감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가족기능과 가족역량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에서는 하위 요인인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 등 모든 요인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장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그동안 실시했던 많은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 효과를 알 수 있다(강혜원, 박지원, 2011; 김선해, 박지연, 2010; 이옥 등, 박순희, 정해동, 2014; 정서형, 박지연, 2016; 정지희, 박지연, 2010). 양육효능감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해결과 관련한 부모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장애자녀의 문제행동을 지원하고 대안행동을 가르칠 수 있는 ‘긍정적 행동지원’,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음악 놀이 지도’, ‘심리재활을 위한 동작법’ 등 부모들이 가정에서 실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해당 주제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고, 더불어 부모들이 사례를 선정하여 직접 시연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것이 부모들의 양육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가족구성원 중 한 개인의 문제는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특히 장애학생 가족의 경우 장애아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이 받는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지만,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동시에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환경이 구비되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장애학생 프

로그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 환경이 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 프로그램은 장애학생과 특수교육과 대학생의 비율이 1:1 또는 1:2 비율로 운영되었는데 대학생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이러한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좋은 연구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제한점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 참여한 장애학생 중 일부 학생은 집중적인 행동지원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학부모 대부분이 프로그램 참여 당시 1~2학년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을 비롯한 행동중재를 실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프로그램 실시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실제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행동문제에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아 실험집단과 연구결과를 비교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결과와 프로그램 이후 부모님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장애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합된 가족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장애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합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의 역량강화와 함께 장애학생의 성장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어 장애학생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가정에서도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 박지연 (2011).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유아 부모의 양육 효능감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1), 1-25.
- 권요한, 박종흡, 박찬웅, 최성규, 홍종선 (1998). **장애학생 부모교육 프로그램**. 안산: 국립 특수교육원.
- 김선해, 박지연 (2010). 통합촉진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및 가족역량강화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2(1), 183-200.
- 김윤경 (2015). 지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은라, 박재국, 정계숙 (2015). 액션러닝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아 부모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효과.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2), 23-49.
- 김은라, 박재국, 정계숙, 박수홍 (2014). 액션러닝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아 부모의 양육 역량에 미치는 효과.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2), 45-70.
- 노경섭 (2016).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 분석**. 서울: 한빛아카데미.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태경, 박재연 (2017). 발달장애아동부모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8(2), 1-24.
- 송경선 (2000).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발달지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능력 부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민주, 선우현 (2009). 부모교육 통합프로그램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5(2), 143-169.
- 이옥등, 박순희, 정해동 (2014). 생태학적 중심 장애아동 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21(1), 20-38.
- 이옥등, 박순희, 정해동 (2015). 장애아동 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유아특수교육연구**, 15(2), 65-84.
- 이원희, 광승철 (2015).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의 동향분석 및 과제: 2005년~2014년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0(1), 261-290.
- 임희수, 허계형, 손병덕 (2018).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5(5), 77-100.
- 전혜인, 이명희 (2014). 장애자녀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실태 및 부모의 요구. **발달장애연구**, 18(1), 1-23.
- 정서형, 박지연 (2016).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 가족역량강화, 가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6(1), 89-108.
- 정선진, 박승희 (2009).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전이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9(1), 135-160.
- 정지희, 박지연 (2010). 가족중심의 전환교육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자기결정과 부모의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가족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77-101.
- 정필연, 임동선 (2011). 메타분석을 통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언어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16(4), 521-539.
- 조윤경, 김경혜 (2005). 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이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와 가족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5(1), 79-104.
- 최경화, 홍상욱 (2016). **감정코칭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최형성 (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Brookman-Frazee, L. (2004). Using parent/clinician partnerships in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6(4), 195-213.
- Evans, M. E., Boothroyd, R. A., Armstrong, M. I., Greenbaum, P. E., Brown, E. C., & Kuppinger, A. D. (2003).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intensive in-home crisis services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Program outcome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 11(2), 92-102.
- Koren, P. E., DeChilo, N., & Friesen, B. J. (1992). Measuring empowerment in families whose children have emotional disabilities: A brief questionnaire. *Rehabilitation Psychology*, 37, 305-321.
- Turnbull, A., Turnbull, R., Erwin, E. J., Soodak, L. C., & Shogren, K. A. (2013). **장애아 가족지원·가족 전문가, 장애아: 협력과 신뢰를 통한 긍정적 성과**(이미숙, 노진아, 김연하, 김정민, 김태영, 한민경 공역). 서울: 학지사. (2011)
- Van Reich, S., Bickman, I., & Helfinger, C. A. (2004). Covariates of self-efficacy: Caregiver characteristics related to mental health services self-efficacy.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2, 99-109.

The Effects of Integrated Family Support Program for Parent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on Family Function, Family Empowerment, and Parenting Efficacy

Lee, Weon-hee

Kwon, Hyuk-sang

Kwak, Seung-chul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grated family support program for parent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family function, family empowerment, and parenting efficacy. The family support program was made up of two individual programs with 10 sessions in which parent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uld participate together. To this end, 18 parents and 15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The family support programs for parents consisted of three different domains, such as general special education, educational support for daily living, and legal issues and occupation & welfare. In addition, the family support program for students consisted of four different domains, such as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art activity, play activity, athletic activity.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integrated family support programs were effective in making significant differences on pre-post test results on parents' family function, family empowerment, and parenting efficacy. First, family cohesion, the subcategory of family function, was improved significantl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family adaptability. Seco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areas of family empowerment, such as knowledge, ability, self-efficacy, except self-advocacy. Thir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ll five sub-factors of parenting efficacy.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concluded that the integrated family support program in which parent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uld participate together was useful in improving the family empowerment among families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suggestions for family support programs was discussed.

Key Words : Family Support Program, Family Function, Family Empowerment, Parenting Efficacy

논문 접수: 2019. 02. 13 심사 시작: 2019. 02. 13 게재 확정: 2019. 03. 22